

ROUTES

노선도 9월호
The September Issue

2



『노선도』는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발행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전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등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노선도』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행되며 유통망에 참여하는 참여 거점에 독점적으로 배포됩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립미술관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입니다. 2000년 제1회 행사 이래로,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미디어, 도시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해왔습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하에 도피주의를 다시 생각합니다.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는 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내가 사는 세계와 만나고, 타인과 나를 연결해주는 도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하루하루 탈출한다》의 본 전시는 2021년 9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전시 개막 전인 8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선보입니다.

www.mediacityseoul.kr
@seoulmediacitybiennale
#비엔날레유통망
#하루하루_탈출한다
#One_Escape_at_a_Time

표지이미지: 바니 아비디, 〈연설〉 스틸이미지 중 일부, 2007. 작가 제공.

헨리케 나우만, 〈프로토타입 네이션〉 중 일부, 2021. 작가 제공.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유통망



서점 PRNT 전경, 2021. PRNT 제공.
설치작품: 치호이, 〈회전목마〉 중 일부, 2014.

첫 번째 질문. 지금 읽고 있는 이 소식지를 당신은 어디에서 발견했나? 비엔날레 전시가 한창일 서울시립미술관의 로비에서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카페나 서점 또는 동네 잡화점에서 무심코 집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작은 액자나 포스터, 영상 클립이 눈에 띄거나 음악이 들려오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비엔날레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비엔날레의 유통망 안에 있으니까.

전시작품의 일부를 일상 속에서 소개하는 '유통망'은 비엔날레 기획 초반부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열한 번째 비엔날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출현이 곧 서울이라는 도시를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는 첫 번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물음을 더욱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비엔날레가 내세운 '도피주의'에 관하여 우리는 그 탈출이 무엇을 통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질문할 필요도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도심 곳곳에서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유통망은 이 광범위한 경험의 활로를 통해 전시의 주제를 확장하고자, 서울의 민간거점과 공공기관, 미디어파사드와 텔레비전 방송에 접근했다.



바 PER 전경, 2021.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올리버 라틱, 〈사이〉 스틸이미지, 2018.



서점 책방곱셈 전경, 2021.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No) Time〉 중 발체, 2020.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2019)의 감독 봉준호는 수상소감으로 자신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 카페의 주인에게 각본상을 바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대부분 삶의 여유나 영감, 혼자만의 시간과 대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하나 정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이 일상의 은신처로 들어가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때론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다. 도심의 카페나 바, 레스토랑과 서점 등은 바로 그러한 탈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엔날레팀은 출품작 중 일부를 포스터나 영상 클립 등의 형식으로 만들어 이 거점들에 두고 사람들의 도피주의에 동참하고 싶었다.

각 거점을 섭외할 당시, 비엔날레팀이 우려했던 바는 이들 거점에서 유통망 프로젝트를 바쁜 와중에 찾아온 불청객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눈길을 주는 비엔날레의 작은 조각과 흔적들이 손님을 더 불러들이거나 매출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었다. 때로는 애써 리서치한 카페나 식당 중 일부가 중간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코로나 시대였다. 그때마다 예술을 가지고 설득하는 일의 어려움에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많은 거점은 멋진 예술보다 더 멋진 태도로 흔쾌히 환대해주었고, 오히려 더 많은 예술이 들어오는 것을 바랐다. 팀원들이 가게를 방문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작가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은 비엔날레가 도시에 더 넓게 스며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거점들의 벽면과 모니터 하나하나가 모두 이번 비엔날레의 새로운 미디어이기도 했다. 미디어아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첫 번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있던 뒤로 20년이 지난 지금, 비엔날레가 바라보는 미디어는 달라져 있었다. 첫 행사 이후 미디어아트는 꾸준히 대중적으로 익숙한 현대미술의 장르가 되었고, 비엔날레 전시는 점차 장르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열한 번째 비엔날레는 도시 안팎의 소통을 매개하는 시넵스로서의 거점과 더불어 이 안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도시의 리듬과 우리들 각자의 리듬을 비엔날레 유통망으로 엮는다.

물론 일상 속 거점들과 그 안의 마이크로 미디어들만이 유통망의 전부는 아니다. 삼성역 코엑스에 위치한 케이팝스퀘어미디어는 서울에서 가장 큰 미디어 디스플레이다. 도심 속 강렬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는 이 미디어캔버스에 비엔날레의 영상작품이 등장한다. 광고와 K-Pop 등 이미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동력은 최대한의 출력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영상작품이 회화나 조각과는 다르게 송출되는 미디어의 크기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장소에서 유례 없이 커다란 미디어캔버스로 바라보는 다섯 작가의 영상작품은 주변을 오가는 누구에게라도 전혀 다른 규모의 메시지를 선사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도심 속 크고 작은 거점들은 모두 유통망의 미디어로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탈출을 돕는 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탈출을 말한다면 집에서 즐기는 텔레비전 시청을 빼놓을 수 없다. 비엔날레팀은 오늘날 우리의 감각을 구성해온 가장 소란스러운 상자, 텔레비전 속에도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TBS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on TBS>가 준비되었다. 여섯 작가의 영상작품은 방송 시스템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 가요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의 문법을 구사하는 현대예술, 우리를 몰려들게 하고 열렬히 믿도록 만드는 현대의 판타지 등의 주제를 다룬다. 유통망은 바로 이 주제들을 가장 가능하게 만들었던 텔레비전을 통해 영상작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자신만의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고 발견하며 머문다. 그렇게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네트워크형 미술관을 지향하는 것 역시 도시 안에서 시민들의 리듬에 조응하기 위해서이다. 때로 당신이 미술관보다 조금 더 익숙한 리듬을 가진 공간으로 찾아 나설 때, 비엔날레 역시 당신의 오아시스 안에 작은 탈출구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 바란다. 바로 유통망이라는 이름으로.

글_이문석



TBS 방송 예정작품, 무니라 알 카디리, <비누> 스틸이미지, 2014. 작가 제공.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at 케이팝스퀘어]

삼성역 코엑스 아티움 전면에 위치한 케이팝스퀘어미디어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시각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강남의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탈출한다》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8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매시간 2회씩

프로그램
8월 28일 - 9월 11일: 취미가×워크스
9월 15일 - 9월 29일: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10월 2일 - 10월 16일: 아이사 흑슨
10월 20일 - 11월 3일: 유리 패티슨
11월 6일 - 11월 20일: C-U-T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on TBS]

공영방송 TBS에서 방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비엔날레에 출품되는 영상작업을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9월 18, 25일(재방송) 토요일 오후 11시 ~ 오전 12시

프로그램
바니 아비디, <애국가>(2000), 2분 42초
아이사 흑슨, <슈퍼우먼: 돌봄의 제국>(2021), 12분 17초
DIS, <절호의 위기>(2018), 3분 48초
필비 타칼라, <마음이 원한다면(리믹스)>(2020), 15분 37초
아마추어증폭기, <김추자는 영원하다>(2006), 2분 14초
폴 파이퍼, <구현하는 자>(2018-21), 20분 21초



케이팝스퀘어미디어 전경, 2021.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취미가×워크스, <OoH>, 미디어캔버스에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 2021.

심두 류수현 대표

심두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게의 이름인 '심두'란 어떤 뜻인가요?

심두는 지하철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의 심드렁한 얼굴을 가지고 쿠키 등을 만드는 프로젝트, '심드렁' 쿠키 작업의 연장 선상에서 기획된 쿠키바/레스토랑입니다. 한 입 베어먹어도 '그러던가 말던가...'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심드렁한 얼굴을 메뉴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심두'라는 가게 이름은 '심드렁'과 비슷한 단어를 찾다가 만든 한자 조합으로 스며들 심(沁)과 머무를 두(逗), 즉 '스며들어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두의 인테리어는 빨강과 파랑과 노란 원색이 도드라져요.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착안하게 되셨나요?

심두의 색감은 인테리어를 한창 하고 있을 당시 우연히 본 홍콩 남내재 감독의 영화 <신복두신권>(1992)의 색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동그라미 세 개가 겹쳐진 형태인 심두와 심드렁의 로고에 착안했습니다.

『노선도』 8월호 류한솔 작가의 인터뷰를 보시면, 작가도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만화와 영화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신복두신권>도 있었어요. 이 외에 좋아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신복두신권>은 영화의 내용보다는 옛날 필름이 바랜 색감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영화들, 테리 길리엄 감독의 <브라질>, 스티븐 스필버그의 필름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 린 타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미궁 이야기> 중 1편 '라비린스 라비린토스', 곤 사토시 감독의 <파프리카>,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작품, 기타노 타케시의 영화들, '닥터 후'와 '릭 앤 모티' 시리즈 등등이 있네요. 떠올려보니 영향받고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이 너무 많은데 우선 강렬하게 남은 것들 위주로 적어봅니다.



쿠키바 심두 전경, 2021,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리우추앙, <러브 스토리> 중 일부, 2013/2021.



심두 설치사진.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류한솔, <버진 로드> 스틸이미지, 2021.

심두에는 류한솔, 리우추앙 작가의 포스터가 걸려있습니다.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오시면 두 포스터가 5분 정도 길이의 영상작품 스틸컷과 설치 작품으로 모아둔 여러 이미지 컷 중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작의 예고편 같은 이 두 장의 포스터가 처음 심두에 걸렸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리우추앙 작가의 포스터 같은 경우 원래 가게에 있던 것처럼 심두와 잘 어우러진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류한솔 작가의 작업 같은 경우 처음에 스틸컷 이미지만 보고 어쩐지 끌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노선도』 8월호에 실린 작가님 인터뷰에서 저 역시 심두를 만들며 영향받았던 <신복두신권>을 언급하신 것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비엔날레의 유통망 프로그램을 찾아온 손님을 위해 심두가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스며들어 머문다'는 의미가 있는 '심두'의 칵테일 '심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작가님의 포스터와 스틸컷 이미지가 심두에 스며든 것처럼 스며들다 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행_이문석

참여작가 장윤한



참여작가 장윤한. 작가제공.

이번 비엔날레 본 전시 및 온라인 채널 참여작인 〈We Chose the Moon〉(2021)은 어떤 작업인가?

〈We Chose the Moon〉은 이전과는 다른 창작방식을 시도한 작업이었다. 원래대로라면, 나는 서울을 방문해 나만의 방식으로 도시를 관찰하고 해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예전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신체로 감각으로 도시에 접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나는 뉴스를 통해 여러 사건에서 사람들이 느낀 감정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과거의 경험을 살피고, 글쓰기를 통해 현실과 상상 사이를 계속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독려로 온라인 플랫폼상에도 작품을 공개하게 되었다.

출품작 〈We Chose the Moon〉은 근과거의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시적이고 함축적인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업에 영향을 준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이 있나?

지난 10년 동안 타이완 사회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거리 시위가 있었고 (물론 과거에는 더 많은 시위가 있었다), 최근에는 홍콩과 미얀마에서도 격렬한 정치적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민으로서 나 자신과 도시, 사회, 국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의 차원에서 특정한 행동이 '효력'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어떤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지 우리가 수동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 실천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일상적인 활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예술적 실천에 대하여 소개를 부탁한다.

나는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살면서 활동한다. 예술대학에서 졸업한 후, 나는 한 기업의 재단에서 청소년교육에 관련한 일을 했고, 최근에는 창작활동 외에도 문화기관과 논의하여 새로운 교육진흥을 위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번역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내 작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창작의 밑거름이다.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형태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장윤한, 〈We Chose the Moon〉웹사이트 스틸이미지, 2021. 작가제공.

이번 신작은 비엔날레의 주제인 '도피주의'에 관한 하나의 응답이기도 하다. 팬데믹 이후, '도피주의'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달라졌을 듯한데 어떠한가?

나에게 '도피주의'란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섬세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 가깝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은 우리에게 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만을 통해 '현실'에 도달하거나 느낄 수는 없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현재를 넘어 더 많은 가능성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신작에서 나는 개인적이고 세밀한 감정을 가지고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려 노력했다. 이 작품은 어떤 답을 제시하는 대신, 세계가 심하게 뒤흔들리고 있는 이 순간, 사람들 사이의 경험을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신적인 공간을 여는 새로운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작업은 종종 미묘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에 스며든다. '유통망' 거점에서 당신의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나?

서울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무척 현대적이고 깔끔하며 질서 있는 도시였다. 나는 내 작품이 걸보기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도시에 심어져서 사람들이 힐끗 보고 무심코 읽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었으면 한다. 그 순간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만들고 이들이 길을 걷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 문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들과 앞으로의 작업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일하고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전보다 더욱 많은 시간 무언가 읽고 영화를 보며 지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나를 불안하게 하기보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만드는데, 이는 독서를 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이 사람을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다. 현재 나는 몇몇 예술가들과 함께 역사적인 이슈나 사회적 사건에 대응하는 게임 디자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실험하고 또 실천해보고자 한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장윤한 작가의 온라인 프로젝트 〈We Chose the Moon〉은 작가의 웹페이지(wechosethemoon.art) 또는 비엔날레 온라인 채널 페이지(mediacityseoul.kr/ko/onl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_김신재

바 신도시 전경, 2021,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장윤환, 〈We Chose the Moon〉, LED 사이니지, 2021.



홍진원, 〈DESTROY THE CODES〉 온라인 구독서비스 웹사이트 스틸이미지, 2021.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



서점 고요서사 전경. 고요서사 제공.

고요서사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고요서사라는 이름에 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고요서사는 남산 바로 아래, 굽이굽이 언덕길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동네인 해방촌의 오래된 벽돌집들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문학 서점입니다.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고요'와 박인환 시인이 운영했던 예술서점 '마리서사'를 떠올리며 '고요서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2015년 가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서사는 주로 어떤 책을 다루나요?

고르고 고른 소설·시·에세이로 서가의 중심을 채우는 '문학 중심 서점'을 지향합니다. 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가치나 주제들과 연관된 인문·사회·예술 책도 함께 소개하여 풍성한 독서의 길을 권하기도 합니다. 좋은 문학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이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베스트셀러 판매를 지양할 순 없지만,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비교적 덜 소개되는 책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영화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서점을 생각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좋아하는 영화와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으셨다면 얘기해주세요.

학부 전공에서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경험이나 영화 작법서를 재미있게 편집했던 기억 등이 어우러져서 영화서점을 꿈꿨어요. 당시에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요즘은 예전에 비해 흥미를 잃어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을 담았거나 서사 중심의 분석을 담은 책, 원작 도서에는 관심이 많진 않았습니니다. 현재 소설이라는, '서사' 중심의 책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다소 모순된 생각이죠. 영화라는 매체를 이루는 문법(작법)을 이해할 때 이 장르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폭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은 모두 학술서에 가까운 성격의 책들이라 질문에 대한 영화나 책을 골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넷플연가'라는 모임에서 영화와 책을 연관 지어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진행 중인데, 관련 커리큘럼을 보시면 제가 추천하는 영화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요서사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지금 고요서사에 설치된 홍진훤 작가의 프로젝트 <DESTROY THE CODES>(2021)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서 작가와 쌍방향으로 영상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이 온라인 구독서비스는 구독자 수나 광고수익,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교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고요서사에 이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설치되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서점 고요서사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서점 고요서사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촬영: 홍철기.
설치작품: 홍진훤, <DESTROY THE CODES> 프로젝트 온라인 구독서비스, 2021.

유통망 프로젝트에 참여 제안을 받고 나서 설치될 작품에 대해 듣고는 꽤 반가웠습니다. 이전에 홍진훤 작가가 김연수 작가와 협업 출간했던 책,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가 인상에 남아 있기도 했고, 최근 웹사이트 코딩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서점 손님들과의 소통 창구를 더 넓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 역시 다수의 의도나 관심보다는 특정한 개인들의 개별적 목소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서점이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운영 형태와는 괴리가 있을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런 생각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혹시 직접, 이 구독서비스를 이용해보셨나요? 아니면 시도하는 손님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서점 메일로 구독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직 메일을 받아보진 못했어요.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께는 구독을 권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서점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단골분들이었습니다. 서점이라는 공간과 예술의 연결성에 흥미를 보이거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귀가 솔깃해진 분들이었어요.

고요서사가 비엔날레의 유통망 프로그램을 찾아온 손님을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현대미술과 문학의 관계, 미술계의 실체에 대해 다루는 세스 프라이스의 자전적 소설 『세스 프라이스 개새끼』가 생각나네요. 조해진 작가의 단편 소설집 『환한 숨』의 몇몇 작품도 현대예술과 소설의 접점을 살펴보실 수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행_이문석

인터뷰에서 언급된 홍진훤 작가의 구독서비스 프로젝트 <DESTROY THE CODES>는 작가의 웹사이트(destroy.codes) 또는 비엔날레 온라인 채널 페이지(mediacityseoul.kr/ko/onl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공간 ONEROOM



《ONE-PIECE》 전시전경, ONEROOM, 2018.
ONEROOM 제공.



ONEROOM, 《Decoding Models》 웹페이지 스타일이미지, 2020-.
ONEROOM 제공.

ONEROOM은 어떤 공간인가? 올해로 5년째
을지로에서 미술공간을 운영해왔는데, 지금까지 주로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창작자와 관객을 만나왔나?

기획 전시와 인터뷰를 통한 작가 연구가 주된 활동이다. 개최한
전시의 경우 개인전 비중이 높으며, 한 작가의 전작을 대상으로
작업 제작 과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 인터뷰 프로젝트
'ONE-PIECE'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자와 학생 및 전공자들이 방문한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아르페어에 참가하여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계기로 ONEROOM
이 진행하는 신작 〈Decoding Models〉(2020)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작품의 형식적인 부분에 꾸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시대 미술에서 디지털의 논리적 구조가 현실을
번역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작품 안에 성분처럼 녹아있는
디지털 문법을 파악해보자는 것이 출발이었다. 하나의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필요한 목적과 비슷하다.

〈Decoding Models〉는 미술작품은 물론 프로덕션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창작자의 도구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길을 함께 걸으면 즐겁다. 두 번째는 오픈소스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눈보다 빠른 손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Decoding Models〉는 모델링의 언어를 기반으로
미술작품 및 프로덕션을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류한솔과 홍진희를
인터뷰했다. 인터뷰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었다면?

홍진희의 웹 프로젝트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교란을 위한 '소동'을 유도한다. 류한솔은 미디어를
향한 개인의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하여
크로마키 안으로 들어간다. 이들에게 디지털 틀은 또 다른 현실
혹은 가상으로부터의 탈출구처럼 보인다.

비엔날레를 계기로 진행하게 된 이번 프로젝트를
앞으로도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나?

웹 페이지 운영을 지속하며 과거의 사례를 다시 보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스크랩해 나갈 예정이다. 일정한 규모의
용량이 채워지면, 전시 형태로 구성해 보고 싶다.

진행_유지원

인터뷰에서 언급된 ONEROOM의 온라인 프로젝트 〈Decoding Models〉
는 웹페이지지(decodingmodels.com) 또는 비엔날레 온라인 채널 페이지
(mediacityseoul.kr/ko/onl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NEROOM, 《Decoding Models》 웹페이지 스타일이미지, 2020-. ONEROOM 제공.

유통망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유통망은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100여 곳에 가까운 거점에서 비엔날레 전시의 조각과 흔적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술관의 테두리 바깥, 도시의 맥락 속에서 전 세계 현대미술 작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예술의 언어와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페, 상점, 문화공간, 도심의 광고판에서 만나는 이 이미지들은, 매일 오가는 장소에서 발견하는 낯선 무언가로 여겨질 수도 있고, 도리어 친숙한 장소이기에 미술관의 작품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유통망에는 서울의 일상 속에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들이 서로와 교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 서점, 상점, 문화공간 등 다양한 민간 거점이 참여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에서 유래한, 40종류가 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선보여집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 서울시의 문화기관과 도심 속 미디어캔버스에서도 유통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 영상
- 음원
- 설치작업

※ 관람 및 청취가 가능한 시간은 각 거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 거점에 설치된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디오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큐피커(QPICKER)"를 다운로드받은 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찾아보세요. 거점별로 설치된 작품의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1	케이팝스퀘어미디어 (미디어캔버스) 강남구 영동대로 511 @cjpowercast_ad_official
	강서구
2	서울식물원 (공공기관) 강서구 마곡동로 161 @seoulbotanicpark
	관악구
3	남서울미술관 (공공기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seoulmuseumofart
	노원구
4	북서울미술관 (공공기관) 노원구 동일로 1238 @seoulmuseumofart
5	서울생활사박물관 (공공기관)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sulm_official
	동작구
6	PRNT (서점) 동작구 만양로1길 1 @prntseoul
7	공간인혹석 (서점) 동작구 흑석로5길 94 @spaceinblackstone
	마포구
8	EP COFFEE N BAR (바) 마포구 성미산로29길 40-6 @epcoffeenbar
9	MO.LAB (카페/문화공간) 마포구 월드컵로10길 9 @molab_official_kaffee
10	고미태 (식당) 마포구 월드컵로 41 @gomiitae

11	공상온도 (복합문화공간) 마포구 동교로23길 40, 지하1층 @gongsangondo
12	글벗서점 (서점) 마포구 신촌로 48 @geulbeotbooks
1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공공기관)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seoulmuseumofart
14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 마포구 백범로 127-24 @before.it.melts
15	더블하모니 (카페) 마포구 동교로 99, C&L 빌딩 101호 @cafe_doubleharmony
16	띠웃 (제과점) 마포구 동교로41길 4 @teot_dessert
17	라이즈호텔 (호텔) 마포구 양화로 130 @ryse_hotel
18	먼슬리케이크 (제과점) 마포구 서강로11길 9 @monthlycake_
19	번역가의 서재 (서점) 마포구 동교로17길 67 @tlbseoul
20	북스피리언스 (서점) 마포구 연남로11길 34, 지하1층 @booksperience
21	슬런치 팩토리 (식당) 마포구 와우산로3길 38 @slunch_factory
22	식물상점 (꽃집) 마포구 월드컵로11길 67 @singmulstore
23	연남방앗간 (상점) 마포구 동교로29길 34 @yeonnambangagan

24	오브젝트-서교점 (상점) 마포구 와우산로35길 13 @insideobject
25	이리카페-상수점 (카페) 마포구 와우산로3길 27 @yricafe
26	책방곰셈 (서점) 마포구 성미산로29길 33 @bookstorethex
27	책방사춘기 (서점)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30 @sachungibook
28	책방연희 (서점)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지하1층 @chaegbangyeonhui
29	카페더블루스 (카페) 마포구 독막로19길 42-18
30	커피랩-본점 (카페)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4 @coffeelab_hongdae
31	커피랩 익스프레스 (카페) 마포구 홍익로 15 @coffeelab_hongdae
32	콜로라도프로젝트 (카페/문화공간/상점) 마포구 대흥로20안길 20 @colorado_project
33	플랫랜드 (카페) 마포구 동교로17길 37 @flatland_
34	훈고링고브레드 (제과점) 마포구 잔다리로 130, 2층 @hungoringobread

서대문구

35	경성참기름집 (상점) 서대문구 홍연길 66 @ks.sesameoil_1983
----	--

36	폴리 (카페) 서대문구 홍제천로 198 @cafetuuli
37	미네르바 (카페) 서대문구 명동길 20-1, 2층 @minerva_1975
38	미도파커피하우스 (카페) 서대문구 성산로 317, 2층 @midopacoffeehouse

39	보틀팩토리 (상점) 서대문구 홍연길 26, 지하1층 @bottle_factory
----	---

40	생활수집 (카페와 상점) 서대문구 연희동 220-20, 2F @collect.store
----	---

41	심두 (식당) 서대문구 홍연길 82, 2층 @simdelung_cookiebar
----	--

42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연점 (카페) 서대문구 홍연길 80 @esperanza.roasters
----	---

43	에스페란자 로스터즈-홍은점 (카페)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5 @esperanza.roasters
----	--

44	옴브레 페르꼬 (카페)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49 @hombre_terco_coffee
----	---

45	정음철물 (철물점) 서대문구 연희로11길 26 @jungeum.tv
----	---

46	초콜릿책방 (서점) 서대문구 연희로5길 46-11, 102호 @chocobookcafe
----	---

47	커피랩스터스 (카페) 서대문구 연희로 52-2 @coffeelab_hongdae
----	--

	성동구
--	-----

48	다락스페이스 (영화관/서점/식당) 성동구 성수이로7길 24, 2층 @darakspace
----	---

49	단일서울 (카페) 성동구 왕십리로 66-33 @danil.seoul
----	---

50	복식커피 (카페) 성동구 성덕정3길 7-1 @boksic_coffee
----	--

51	사계 (식당) 성동구 연무장13길 19 @seasons_kr
----	---

52	피노크 (상점) 성동구 서울숲9길 5, 2층 @finork_official
----	---

	성북구
--	-----

53	이리카페-석관점 (카페) 성북구 화랑로32길 111 @yricafe_seokgwan
----	--

	양천구
--	-----

54	나무창작소도토리협동조합 (공방) 양천구 지양로7길 28-19 @dottori_story
----	--

	용산구
--	-----

55	MTL-한남점 (카페) 용산구 이태원로49길 24 @mtl_cafebakery
----	---

56	MTL-효창점 (카페)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5 @mtl_cafebakery
----	---

57	고요서사 (서점) 용산구 신흥로15길 18-4 @goyo_bookshop
----	--

58	서사, 당신의 서재 (서점) 용산구 대사관로6길 5, 파크랜드빌딩 6층 @seosa_yourlibrary
----	---

59	오잇 (카페) 용산구 신흥로 95, 1층 @oeat.seoul
----	--

60	커피주아 (카페) 용산구 청파로71길 16 @ilikecoffeeilikecoffee
----	---

	은평구
--	-----

61	서울기록원 (공공기관) 은평구 통일로 62길 7 @seoul.archives
----	--

	종로구
--	-----

62	MK2 (카페)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7 @cafemk2
----	---

63	과학책방갈다 (서점) 종로구 삼청로 10길 18 @galdarbookshop
----	--

64	꾸까 (꽃집) 종로구 을곡로 1, 2층 @kukkakorea
----	---

65	다시세운상가 (공공기관)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makercity_sewoon
----	---

66	더레퍼런스 (서점)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4 @the_reference_shop
----	---

67	더북소사이어티 (서점)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2층 @thebooksociety_
----	--

68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공기관) 종로구 송월길 14-3 @donuimunmuseumvillage
----	---

69	라마홀 (상점)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4 @ramahome
----	---

70	브람스 (카페) 종로구 을곡로 61, 2층
----	----------------------------

71	서울역사박물관 (공공기관) 종로구 새문안로 55 @seoulmuse
----	---

72	식물 (카페) 종로구 돈화문로11다길 46-1 @sikmul
----	---

73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관)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1층 @indiespace_kr
----	---

74	인왕산 대충유원지 (카페) 종로구 필운대로 46, 무목적빌딩 4층 @daechungpark_inwangsan
----	---

75	전진 문화사 (서점) 종로구 수표로18길 21-4 @jeonjin_moonhwasa
----	--

76	종로서적 (서점)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지하2층 @jongnobooks_
----	---

77	청음실 (문화시설) 종로구 청계천로 159 @surisuricoop
----	---

78	풀무질 (서점) 종로구 성균관로 19, 지하1층 @poolmoojil
----	--

79	필운동사진관 (사진관) 종로구 필운대로 15 @studiopud
----	---

	중구
--	----

80	PER (바) 중구 수표로6길 39, 2층 @per_naturalwinebar
----	---

81	노말에이 (서점) 중구 마른대로 12, 4층 @normala.kr
----	--

8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미디어캔버스) 중구 을지로 281 @ddp_seoul
----	--

83	라운드앤드 (카페) 중구 정동길 35 @roundnd_cafe
----	--

84	루이스의 사물들 (카페) 중구 청계천로 172-1, 3층 @louis_collections
----	--

85	마이스크릿덴 (모임공간/바) 중구 덕수궁길 9, 현진빌딩 401호 @my.secret.den
----	--

86	서울도서관 (공공기관) 중구 세종대로 110 @seoul_library
----	---

87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미디어캔버스) 중구 만리재로 215
----	-------------------------------------

88	솔 커피숍 (카페)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라열
----	---

89	시민청 (공공기관) 중구 세종대로110 @simincheong
----	--

90	신도시 (클럽) 중구 을지로11길 31, 5층 @seendosi
----	---

91	에어커피 (카페) 중구 서소문로11길 19, A동 LL층 12호 @aire_coffee
----	---

92	우주만물 (상점) 중구 을지로11길 29, 2층 @cosmoswholesale
----	---

93	잔 (카페) 중구 수표로 52, 3층 @jan_euljiro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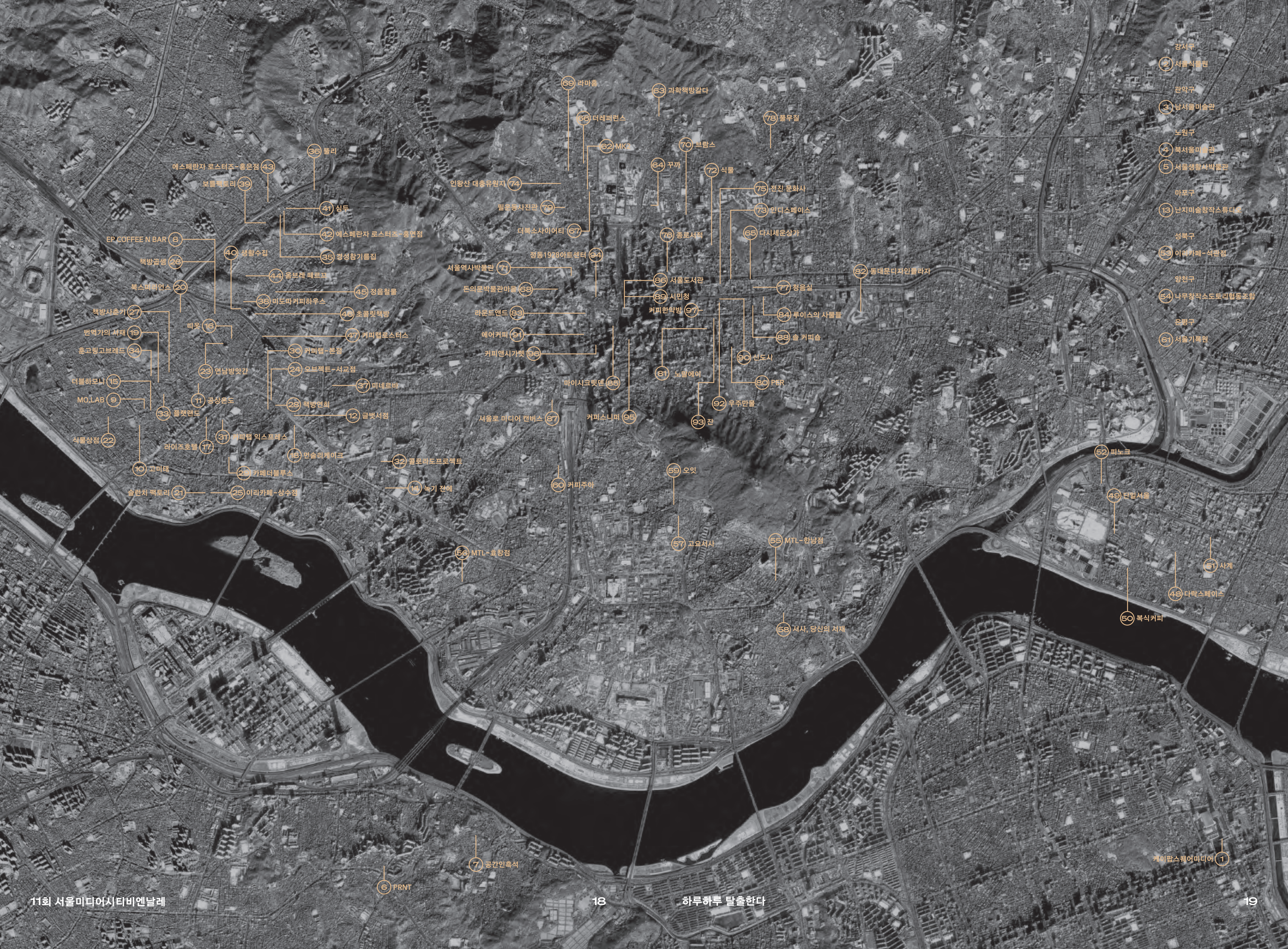
94	정동1928아트센터 (아트센터) 중구 덕수궁길 130 @jeongdong_1928
----	---

95	커피스니퍼 (카페) 중구 세종대로16길 27, 남양빌딩 102호 @koffee.sniffer
----	--

96	커피앤시가렛 (카페)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7층 @coffeeandcigarettes1706
----	---

97	커피한약방 (카페) 중구 삼일대로12길 16-6 @coffeehanyakbang
----	--

※ 이밖에도 대중교통 미디어와 전광판에서도 다양한 유통망 콘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노선도』 2호: 유통망

발행
2021년 9월

발행인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백지숙

기획, 집필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편집
이문석

디자인 기획
워크숍스(Wkshps)

운영 대행사
얼트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T. 02-2124-8800
www.sema.seoul.go.kr

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
2021년 9월 8일 - 11월 21일
서울시립미술관
www.mediacityseoul.kr

이 책에 실린 글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oul Museum of Art and the artists. All rights reserved.

후원과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기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에르메스 코리아

비엔날레 파트너
RC 재단

미디어 캔버스 파트너
CJ 파워캐스트

방송 파트너
TBS

국제 미디어 파트너
프리즈

2021 미술주간

문화 파트너
독일국제교류처
영국문화원
일본 문화청(아트 플랫폼 재팬)
캐나다예술위원회
컬처 아일랜드
토론토예술위원회
프랑스문화원
프레임
프로 헬베티아
홍콩예술발전국



비엔날레를 흥미롭게 즐기는 단 하나의 방법!

오디오가이드 어플리케이션 큐피커에서
전 세계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의
오디오가이드를 만나보세요!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큐피커]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QPICKER

Business Mail manager@peopulley.com

